『中國學』第85輯 (2023.12.31.)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5.85.5
pp.087-106. ISSN : 1229-9618

유형론 기반 한·중 능격동사 대조 연구*

이길연** · 황련화***

【목 차】

1. 서론
2. 선행연구
3. 능격동사와 유사동사의 정의 및 특징
4. 한·중 능격동사의 판단기준과 유형
5. 능격구조와 관련된 특수구문
6. 결론

【초록】

본고에서는 유형론 연구에 기반하여 가장 전형적인 '능격-절대격' 언어에서 능격동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았고 한·중 능격동사의 판단기준, 유형, 특징을 알아보았다. 아울러 능격동사와 비슷한 개념인 절대격동사, 비능격동사, 비대격동사들의 정의와 하위분류들을 살펴보고 능격동사와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중 능격구문의 실현양상을 제시하고 그 통사적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능격구문과 관련된 중간구문, 사동구문, 피동구문의 실현양상, 판단기준,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키워드】 능격동사, 절대격동사, 비능격동사, 비대격동사, 유형론

* 이 논문은 2023년도 창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과제번호 창신-2023-082)
** 이길연, 제1저자, 창신대학교 중국비즈니스학과 부교수 (ljl22000@cs.ac.kr)
*** 황련화, 교신저자, 中国南京晓庄学院 汉语国际教育학과 조교수 (1245392416@qq.com)

1. 서론

세계 언어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동사 논항들의 배치 순서와 통사적 구조 표기방식에 근거하여 주격-대격(nominative-accusative)언어, 능격-절대격(ergative-absolutive)언어, 3분법(triparie)언어, 동작성-정태성(active-inactive)언어,직접-역류 체계(direct-inverse system), 분열 능격 체계(split ergative system) 등으로 나눌수 있다[1]. 주격-대격 언어는 자동사문의 주어(S)와 타동사문의 주어(A)를 주격(nominative)으로 표기하고 타동사문의 목적어(O)를 대격(accusative)로 표기한다. 능격-절대격 언어는 타동사문의 목적어(O)와 자동사문의 주어(S)를 절대격(absolutive)으로 표기하고 타동사문의 주어(A)를 능격(ergative)으로 표기한다. 이러한 격표지의 실현 양상으로 판단할 때 한국어는 대격언어에 속하고 중국어의 주요 문법적 수단 어순으로 판단할 때 중국어도 대격언어에 속한다.

(1) 동생이 물을 마신다.
(2) *물이 마신다.
(3) 그가 학교에 간다.

위의 예문을 보면 타동사 '마시다'의 주어(A) '동생'과 자동사 '가다'의 주어(S) '그'의 뒤에는 모두 주격표지 '가/이'가 쓰였고 타동사 목적어(O) '물'의 뒤에는 목적격표지 '을'이 쓰였다. 그러므로 한국어는 'S-A, O'로 구분되는 대격언어의 특징에 부합되고 'S-O, A'에 대응되는 문장 '*물이 마신다'는 비문이 되므로 능격언어의 특징에 부합되지 않는다.

(4) 张三打胜了李四。
(5) *李四打胜了。
(6) 他去学校。

중국어는 문법 관계가 어순에 의해 실현되므로 '논항의 위치'를 통하여 능격성과 대격성을 판단할 수 있다. 위의 예문을 관찰하면 타동사 '打胜'의 주어(A) '张三'과 자동사 '去'의 주어(S) '他'는 모두 동사 앞에 위치하고 타동사의 목적어(O) '李四'는

1) https://ko.wikipedia.org/wiki/능격-절대격_정렬. [2023.11.01.]

동사 뒤의 목적어 위치에만 놓일 수 있고, 동사 앞에 놓이면 비문이 되므로 중국어 역시 'S-A, O'로 구분되는 대격언어임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중국어에는 상술한 특징을 따르지 않는 통사적 특징도 분명히 존재한다.

(7) 자동차가 멈추었다.
(8) 죤이 자동차를 멈추었다.

위의 예문에서 '멈추다'는 자동사문의 주어(S), 타동사문의 목적어(O)와 모두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S, O가 같은 절대격이 부여되는 전형적인 능격언어의 특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동사 '멈추다'는 자동사문과 타동사문에서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자동차'는 모두 '피영향자'의 의미를 나타내고 두 문장의 의미도 동일하므로 '멈추다'는 '능격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고영근(2018)에서는 능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형태보다는 기능이 중요하고 위와 같은 문장에서 S와 O가 통사론적으로 1;1의 대응관계가 성립되며 문장의 의미도 같으므로 두 문장이 능격적 짝(ergative pair)을 이루고 있다. [2]

(9) 他做完作业了。
(10) 作业做完了。

위의 중국어 예문을 볼 때 '做完'이라는 동결식 구는 자동사문의 주어(S), 타동사 목적어(O)와 모두 결합될 수 있고 타동사문과 자동사문의 문장 의미도 같으므로 능격동사로 볼 수 있겠다. 또한 S와 O는 무형태로 나타나지만 문법의미상 동일한 '피영향자'를 나타내며 A는 무형태로 '동작주'를 나타내고 'S-A, O'로 구분되기에 중국어도 능격성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론적으로 볼 때, 능격과 절대격 표지는 형태적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통사적으로 실현되기도 하고[3], 대격성의 언어에서도 능격성이 발견되고 능격성의 언어에서도 대격성이 확인되기도 한다.[4] 또한 '광의적인 형태학'[5]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중국어처럼 주로 '어순'으로 문법관계를 나타내는 언어에서는 '어순' 역시 일종의 '문법형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상술한 관점과 위의 예문들을 종합해 보

2) 고영근,『한국어와 언어 유형론』, 월인출판사, 2018, p.323.
3) Dixon, "Ergativity", *Language 55*, 1979.
4) Langacker,R.W, *Foundation of Cognitive Grammar: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Dixon, *Erg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5) 方光焘,『方光焘语言学论文集』, 江苏教育出版社, 1986, p.82.

면 한국어와 중국어에는 모두 '능격구조'가 존재하며, 모두 '능격성이 통사적으로 실현'되는 언어에 귀속된다.

2. 선행연구

기존의 논의에서는 한국어의 능격성과 능격동사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많은 견해가 있었는데 연재훈(2008)에서는 능격동사를 중립동사(middle verb)로 칭하였고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전형적인 능격언어는 명사구의 격표지에 의해 능격성이 표현되는데 이러한 개념을 격이 아닌 한국어 동사에 적용시켜 '능격동사'라고 명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제시하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연재훈(2008)에서는 능격성, 대격성의 판단기준을 형태적 특징에 두었으며 한국어에서는 그 특징이 현저하지 않기에 '능격동사' 부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6] 본고에서는 능격동사의 존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태적 특징만 볼 것이 아니라 어휘의 의미와 기능, 통사적 특징도 참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한국어에는 능격동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고영근(2018)에서는 고대어와 중세어에 능격동사가 현대어보다 많았으며 중세어에는 능격동사에 타동사 표지 '어'가 붙어 쓰이기도 하였고 능격구문이 신이나, 석가, 황제 등 초인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많이 쓰였음을 제시하였는데[7] 이 역시 한국어 능격동사의 지위를 뒷받침하는 논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중국어학계에서도 중국어의 능격성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능격성과 그 통사적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관점[8], 능격동사와 절대격동사만을 인정하는 관점,[9] 중국어의 대격성과 능격성을 모두 인정하는 관점[10]이 있다. 金立鑫(2020)에서는 언어의 기원 및 동사의 내재논항과 외재논항의 통사적 구조 및 표기방식의 논리적 가능성에 근거하여 능격언어의 기능과 언어적 가치를 설명하였고 인류 언어가 보편적으로 능격언어에서 대격언어로 진화하였으며 이는 언어가 쓰이는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생산력 수준과도 관련됨을 제시하였다.

---

6) 연재훈, 『한국어에 능격성이 존재하는가:능격의 개념과 그 오용』, 한글1, 2008.
7) 고영근, 『한국어와 언어 유형론』, 월인출판사, 2018, p.35.
8) 张伯江, 「汉语句式的跨语言观——"把"字句与逆被动态关系商榷」, 『语言科学』, 2014(6), pp.587-600; 罗天华, 「类型学的施格格局」, 『上海外国语大学学报』, 2017(4), pp.25-33.
9) 黄正德, 『中文的两种及物动词和两种不及物动词』, 第二届世界华语文教学研讨会论文集, 世界华文出版社, 1990, pp.46-80.
10) 金立鑫, 「施通格论元组配类型的逻辑分析」, 『北京第二外国语学院学报』, 2020(6), pp.3-23.

상술한 논의를 기반으로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능격성 특징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능격동사와 관련하여 '비대격동사', '비능격동사', '절대격동사' 등 논의도 함께 고찰하면서 기존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그 분류기준,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고, 그 내재적 연관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능격동사와 유사동사의 정의 및 특징

능격동사(ergative verb)와 비슷한 개념으로 , 비능격동사(unergative verb), 비대격동사(unaccusative verb), 절대격동사(absolutive verb)가 있다. 능격(ergative)이라는 용어는 덴마크어에서 유래되었고 의미상 사역자(agent)를 의미한다. 가장 처음으로 수행된 능격성에 관한 연구는 Anderson(1976)에서인데 그는 아바르어(Avar)에서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목적어에 격표지가 없고, 타동사의 동작주 의미를 가진 주어에 모두 격표지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후 영어학계에서는 'John broke the window(타동사)', 'The window broke(자동사)'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면서 'break'와 같이 타동사문에서 목적어로, 자동사문에서 주어로 나타나고 의미상 모두 동일한 '피영향자'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진 동사 부류를 '능격동사'로 간주하였다.

비능격동사와 비대격동사는 Perlmutter(1978)에서 제기되었는데 그는 덴마크어의 자주적, 의도적 의미를 가지고 비인칭 피동문에 나타나는 동사를 비능격동사로 명명하고 비자주적, 비의도적 의미를 가지고 비인칭 피동문에 쓰이지 못하는 동사는 비대격동사로 명명하였으며 비능격동사의 유일한 논항은 외재논항인 기저주어이고 비대격동사의 유일한 논항은 기저 목적어인 내재논항임을 밝혔다. 문자 의미 그대로 비대격 동사란 논리 목적어가 유일한 논항으로 나타나지만 대격을 부여하지 못하는 동사이다. 黄正德(2007)에서는 비능격동사는 동작을 기술하고 동작주를 기본논항으로 하고 비대격동사는 상태를 묘사하며 피영향자를 기본논항으로 한다고 제시하였다.[11]

'절대격동사'라는 용어는 金立鑫, 王红卫(2014)에서 제기되었는데 주로'사역자' 의미의 논항을 가지지 못하는 '비능격동사'를 '절대격동사'로 간주하였다. 중국어에서 절대격동사는 '客人来了-来客人了'중의 '来'와 같이 동사의 논항이 주어위치와 목적어위치에 동시에 위치하고 '사역자' 의미의 논항을 갖지 않는 동사부류이다.[12]

상술한 논의를 요약하면 金立鑫, 王红卫(2014)의 절대격동사는 피영향자 의미의 논

11) 黄正德,「汉语动词的题元结构与其句法表现」,『语言科学』, 2007(4), pp.3-21.
12) 金立鑫·王红卫,「动词分类和施格、通格及施语、通语」,『外语教学与研究』, 2014(1), pp.45-159.

항만을 가지는 비대격동사에 해당하고 능격동사는 피영향자와 사역자 두 개의 논항을 가지는 비대격동사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비대격동사는 능격동사와 절대격동사를 포함한다. 이지현, 이장호(2005)[13]에서는 능격성과 비능격성의 연관성을 제시한 바 있는데 '능격성'이란 대격부여 능력의 유무에 근거한 타동사와 자동사간의 전환이라는 '비대격성'에 '사역'과 '기동'[14]간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추가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상술한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능격동사와 비대격동사의 상이점을 제시하면 능격동사는 '사역자' 논항이 명시될 수 있는 자타 양용동사이고 비대격동사는 피영향자 의미를 가진 기저 목적어 논항이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포괄적인 동사의 부류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상술한 동사 부류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1> 타동성에 의한 동사 분류와 논항 특징

	타동성	논항 통사지위	논항 의미역할	논항 자주성 의도성	논항위치	예시
능격동사	타동사	기저목적어	피영향자	비자주, 비의도	비고정	멈추다 读, 打败
절대격동사	자동사	기저목적어	피영향자	비자주, 비의도	비고정	有, 出现, 来
비능격동사	자동사 타동사	기저주어	동작주	자주적, 의도적	고정(이항) 비고정(일항)	打胜 , 이기다 走 , 가다
비대격동사	자동사 타동사	기저목적어	피영향자	비자주, 비의도	고정(일항) 비고정(일항)	나타나다 出现, ,发生 , 躺

위의 표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능격동사와 절대격 동사는 모두 논항이 기저 목적어인 비대격동사에 속한다. 둘째, 일항 비대격동사에는 논항의 위치가 동사 앞뒤에 자유롭게 놓일 수 있는 절대격동사와 논항위치가 고정된 동사가 포함된다. 셋째, 중국어의 일항 비대격 동사는 대체로 '出现, 发生'과 같은 존현동사(存现动词)들이다. 그러나 같은 의미를 가진 '나타나다', 'happen'과 같은 한국어와 영어 동사들은 그 논항의 위치가 동사 앞에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절대격동사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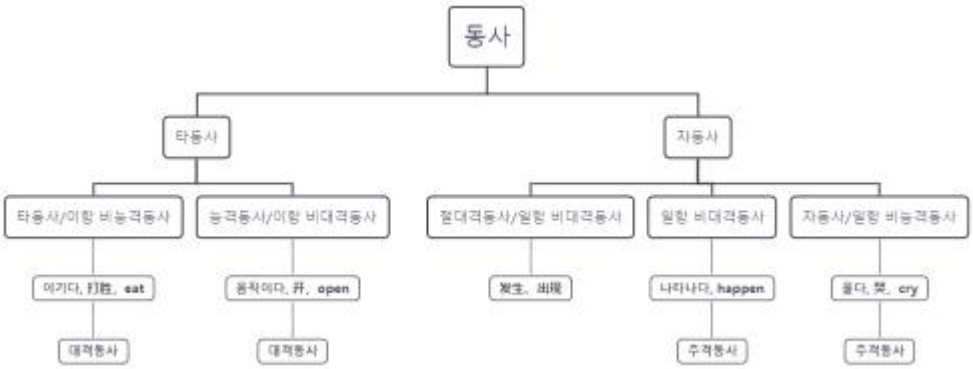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능격동사, 절대격동사, 비능격동사, 비대격동사는 동사의

13) 이지현·이장호, 「현대중국어의 능격동사와 '被+V'의 통사적 관련성」, 『중국어문논역총간』, 2005 (15), pp.271-296.

14) 郑杰·陈楠楠(2019)에서는 자타동사문의 교체에서 나타나는 '기동'의미를 '어떤 객체가 내부의 힘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타동성과 관련된 동사부류인데 그 개념상 겹치는 부분이 많기에 지금까지 적지 않은 용어상의 혼란을 초래해 왔다. 동사의 타동성에 근거하여 능격-절대격 언어 시각에서의 동사 부류를 주격-대격언어 동사와 대응시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1> 능격-절대격, 주격-대격 언어 동사 분류



위의 <그림1>을 전개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는 동사를 타동성의 여부에 따라 크게 타동사와 자동사로 나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타동성의 정도가 약화되고 자동성의 정도가 강화되며 하나의 연속체를 이룬다. 둘째, 타동사에는 주어, 목적어 논항이 반드시 출현하고 위치이동이 불가능한 원형 타동사, '사역자' 논항이 암시되어 있고 명시되지 않을 경우 '피영향자' 논항이 주어위치로 이동 가능한 능격동사가 포함된다. 셋째, 자동사에는 '피영향자' 의미 논항만을 가지고 주어, 목적어 위치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절대격동사, 비자주적 의미의 기저 목적어 논항만을 가진 일항 비대격동사, 동작주 의미의 기저 주어 논항만을 가진 일항 비능격동사가 포함된다. 넷째, 능격동사는 '사역자'가 명시되지 않을 때 자동사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명시될 수 있으므로 타동사에 포함시켰고 절대격동사는 유일한 '피영향자' 논항만을 가지므로 자동사에 포함시켰다. 다섯째, 중국어의 '来'와 같은 절대격동사는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한국어와 중국어에는 주격명사가 자동사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주격-대격 언어의 시각으로 볼 때 이항 비능격동사, 능격동사는 대격동사에 해당하고, 일항 비대격동사와 일항 비능격동사는 주격동사에 해당한다.

4. 한·중 능격동사의 판단기준과 유형

한국어 능격동사에 관한 연구는 이상억(1970)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ergativity'를 '역동성'으로 번역하였고,[15] 이상억(1972)에서는 '움직이다'의 능격구문 '기관수가 기차를 움직인다'와 절대격 구문 '기차가 움직인다'를 제시하면서 상술한 타동사문의 목적어와 자동사문의 주어가 형태상으로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격을 가지기에 능격성 특징이 있다고 해석하였다.[16] 김석득(1980)에서는 새로운 주어를 도입할 때 문장의 사역성이 성립되면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가 모두 능격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국어 학계에서 일부 '능격동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은 능격성 특징을 나타내는 상술한 동사들을 '중간동사'로 명명하였다.[17]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능격동사'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연재훈(1989)에서는 능격구문으로 나타나는 타동사문의 주어가 사역주의 역할을 하기에 '-게/도록 하다/만들다'와 같은 사역 구문으로 환언할 경우 동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18] 박순남(1997)에서는 자동사문에서 능격동사가 결과상 '-어 지다'와 결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19] 한국어 '능격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우양상(1996)에서는 자동사문이 타동사문으로 전환 가능하고, 자동사문의 주어가 목적어로 전이되고, 동사가 형태변화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20] 고광주(2001)에서는 능격동사를 상적인 의미구조에서 상태(변화)성에 속하는 논항만을 취하는 동사라고 정의하면서 비행위자 논항을 갖는 자동사 및 형용사를 모두 포함시켰다. [21]본고에서는 능격동사 '사역자'가 표면상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상 문장에 암시되어 있고, 형용사는 '사역자'를 추론 가능하나 통사적으로 능격동사의 특징인 자타동사 구문의 전환이 어려우므로 형용사를 능격동사로 보지 않는다. 김상혁(2011)에서는 의미상 '사역자' 논항을 가지는 동사는 능격동사가 아니라고 제시하였고,[22] 郑杰·陈楠楠(2019)에서는 동사가 형태적인 변화가 없이 자동사문과 타동사문에 쓰일 수 있고, 동일한 명사 논항이 타동사문의 목적어와 자동사문의 주어로 쓰일 수 있으며, 자타동사문의 교체와 더불어 의미적으로 기동의미와 사역의미의 교체가 수반된다고 제시하면서 '스스로'와

15) 이상억, 「국어의 사동 피동 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70, p.14.
16) 이상억, 「동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 『어학연구』, Vol.8 No.2, 1972, pp.44-59.
17) 김석득, 「자리만듦성과 시킴월 되기 제약」, 『말』, 5, 1980, pp.35-52.
18) 연재훈, 「국어 중립동사 구문에 대한 연구」, 『한글』, 203, 1989, pp.165-188.
19) 박순남, 「중립동사 구문의 정의」, 『한글』, 236, 1997, pp.195-223.
20) 우양상, 『국어 타동구문 연구』, 박이정출판사, 1996.
21) 고광주, 『국어의 능력성 연구』, 월인출판사, 2001.
22) 김상혁, 「영어와 한국어의 능력 동사 비교」, 『영어영문학연구』, 53(3), 2011, pp.85-105.

의 공기를 통하여 능격동사를 판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23)]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억(1970, 1972), 연재훈(1989), 우양상(1996)에서 제시된 '자타동사문의 전환', '사역 구문으로의 환언'은 능격동사 판단기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김석득(1980), 고광주(2001)에서는 능격동사 범주를 폭넓게 정의하였기에 앞서 밝힌 능격-절대격 언어의 능격동사의 용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셋째, 김상혁(2011)에서 제시한 '사역자' 논항은 사실상 능격동사와 절대격 동사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郑杰·陈楠楠(2019)에서 제시된 사역의미는 능격구문의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고 자동사문이 나타내는 기동의미는 능격-절대격 언어의 능격동사에서 표현되는 일반적 특징이 아니고 한국어의 '멈추다, 움직이다'와 같은 일부 능격동사에서만 표현되는 것이므로 이 기준은 적용하기 어렵다. 넷째, 연재훈(1989)에서 제시한 사역을 나타내는 '-게/도록 하다/만들다'는 능격동사 판단기준으로 볼 수 있으나 박순남(1997)에서 제시한 '-어 지다'는 능격동사가 쓰인 자동사문이 모두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에 능격동사의 판단기준으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

기존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한국어 능격동사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통사적으로, 'NP1(사역자)가/이 +NP2(피영향자) 을/를 +V(능격동사)'와 'NP2(피영향자)가/이 +V(능격동사)' 전환이 성립된다. 둘째, 능격구문에서 NP2와 NP1은 동일한 명사구이며 의미적 대응관계를 보인다. 셋째, 능격동사는 '사역자' 논항을 내포하므로 대응되는 타동사문은 '-게/도록 하다/만들다'로 전환이 가능하다. 넷째, 자타동사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동사의 형태는 변화하지 않는다. 다섯째, '크다'와 같이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능격동사에 속하지 않는다. 여섯째, 한국어의 능격동사는 사역성의 정도가 높은 데로부터 낮은 데에 이르는 순서로 '울리다, 그치다'와 같은 사동적 능격동사, '들썩이다'와 같은 능동적 능격동사, '다치다, 상하다'와 같은 피동적 능격동사, '돋다, 마르다'와 같은 비행위성 능격동사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능격동사 분류는 김혜영(2011)[24)]를 참고한 것인데 이 논의와 비교해 볼 때 본고의 가장 큰 상이점 중 하나는 형용사를 제외시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역성이 분명한 사동적 동사를 제외한 사역성이 분명하지 않은 능격동사들도 그 사역자가 어느 정도 추론 가능하므로 능격동사로 본 것이다. 예를 들면 '영희가 허리를 다쳤다.', '허리를 다쳤다.'에서 사건의 발생은 비의도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그 '사역자'가 반드시 존재하기에 '자동차가 영희 허리를 다치게 했다'와 같은 사역문으로 호환 가능하기에 '다치다'를 능격동사로 간주한다. 그리고 '마르다'와 같은 변화동사들도 '태양이 옷을 마르게 했다'에서와 같이 '기인자'가 추론 가능하기에 능격동

23) 郑杰·陈楠楠,「韩国语作格动词的词类地位及判定标准」,『东北亚外语研究』, 第3期, 2019, pp.50-55.
24) 김혜영,「국어의 능력성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011.

사로 간주한다.

중국어의 능격동사에 관한 연구는 吕叔湘(1987)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25] 그는 '打胜'과 '打败'의 용법상의 차이 'A打胜B=A打胜≠B打胜', 'A打败B=B打败≠A打败'를 발견하였는데 능격성과 관련지어 볼 때 '打败'는 능격동사에 속하고 '打胜'은 타동사에 속한다. 王中祥·金立鑫(2017)에서는 능격동사로 쓰일 수 있는 동결식구조의 특징을 '동격식구조 V1·V2중 결과를 의미하는 V2가 목적어 논항을 가리키고 동사의 두 논항 사이에 생명도위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혔다.[26] 金立鑫·王红卫(2014)에서는 중국어 능격동사 판단기준을 "'사역자' 논항이 나타나지 않을 때 '피영향자' 논항이 동사의 앞(주어 위치)과 뒤(목적어 위치)에 모두 놓일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27]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중국어 능격동사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P1+V+NP2'가 'NP2+V'로 전환 가능하다. 둘째, 중국어의 사역구문 '把字句'구문에 쓰일 수 있다. 셋째, 중국어 능격동사의 유형은 양상적으로 '读, 吃'와 같은 단일동사와 '写完, 医好'와 같은 동결식 복합동사구로 나뉠 수 있다. 동결식 능격동사구는 의미상 'V1가 주어논항을 가리키고 V2이 목적어 논항을 가리키는 것(敲碎)'과 'V1와V2이 모두 목적어 논항을 가리키는 것(看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유정물 주어를 가지고 '사역성'과 '동작성'을 모두 의미하며, 후자는 무정물 주어를 가지고 단지 '사역성'만을 의미한다.

5. 능격구조와 관련된 특수 구문

한국어와 중국어학계에서 능격동사, 능격성에 관한 논의가 부단히 진행되면서 일부 특수구문들을 이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들도 더불어 이루어졌다.

능격구조는 능격언어에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양상이다. 金立鑫·崔圭钵(2019)의 가설에 의하면 정보구조에 의한 '주제+논평'의 기능은 통사적으로 '명사+동사' 의 구조로 실현되는데 의미상 가장 합리적인 결합은 선차적으로 '피영향자+동사', '경험자+동사', '동작주+동사'이다.[28] '명사+동사' 구조는 초기 인류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서 명사는 영형태를 취하고 후에 '명사+명사+동사' 구조가 생김에 따라

25) 吕叔湘,「说"胜"和"败"」,『中国语文』, 第1期, 2019, pp.1-5.
26) 王中祥·金立鑫,「动结式的四分系统及其施格特征考察」,『新疆大学学报』, 第1期, 2017, pp.140-145.
27) 金立鑫·王红卫,「动词分类和施格、通格及施语、通语」,『外语教学与研究』, 第1期, 2014, pp.45-57.
28) 金立鑫·崔圭钵,「"把"字句的结构功能动因分析」,『汉语学习』, 第1期, 2019, pp.3-12.

동작주와 피영향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능격표지가 생겨난 것이라고 논증하였다. 金立鑫(2020)에 의하면 능격표지의 출현과 더불어 동사는 자동사에서 타동사로 변화되었고 동작주의 능동성, 의지성, 사역성이 부각되고 동시에 피영향자의 피영향성, 한정성이 돌출되고 능격구조는 시상(时体)적으로 완료상과 완전성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한국어의 능격성과 특수구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혜영(2011)에서는 한국어 능격성의 통사적 실현 양상에 관하여 주어-목적어 인상 구문, 장형부정 구문, 주격중출 구문, 관용어 구문, 연속동사 및 보조용언을 살펴보았다. 중국어의 능격성과 관련구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지현·이장호(2005)에서는 지배결속이론을 근거로 중국어의 능격동사와 '被捕', '被打'류의 통사적 특징을 검토하고 '被捕'류가 '被打'류에 비해 능격화 정도가 더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邓思颖(2004)에서는 능격구조로부터 피동문이 생성되는 규칙을 피영향자 의미를 가진 목적어의 능격화 과정으로 설명하였고,[29] 王忠祥, 金立鑫(2017)에서는 능격구조와 파자구문, 사역구문, 도치문, 피동구문, 화제문의 관련성과 그 통사적 기제를 제시하였고, 절대격구조와 존현문에서 대해서도 다루었다.

이 부분에서는 상술한 기존 논의에 기초하여 능격구조와 관련된 사동구문, 피동구문과 절대격구조와 관련된 중간구문과 존재구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사동구문

사동구조란 두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구문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NP1(사동주), NP2(피사동주), VP1(사동), VP2(결과)' 네 가지 논항으로 구성된다. 즉 사동구조는 사동주의 어떤 행위가 피사동주의 어떤 결과를 초래함을 나타내는 구문이라 할 수 있다. 동일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사건이라 하여도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통제력과 의지, 화자가 부각시키려는 논항과 상황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의 차이로 말미암아 언어적으로 달리 실현될 수 있다. 사동주의 통제력이 강해짐에 따라 사동구조의 언어적 실현 방식은 어휘형, 통사형, 형태형으로 나타나고 이 세 가지 유형은 연속선 상에 있다. 상술한 세가지 사동구조의 유형은 Comrie(1989), Jae Jung Song(2001)에서 제시되었는데 어휘형은 또 보충법과 영파생으로 나뉘고 보충법은 형태형 사동구조에서 파생 양상이 더 이상 생산성을 가지지 않고 기본 양상과의 관계도 추론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고, 영파생은 위에서 제시된 자동사와 타동사구문에 형태

29) 邓思颖,「作格化和汉语被动句」,『中国语文』, 第4期, 2004, pp.291-301.

변화 없이 출현하는 능격동사와 같은 것을 말한다. Whaley(1997)에서는 사동구문의 실현양상에 관해 고립어는 주로 통사형으로 나타나고 교착어는 형태형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일종의 경향성을 제시할 뿐 그 실현 양상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동구조의 실현양상을 관찰하면 세 가지 유형이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중 사동구문의 유형과 실현 양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한·중 사동구문의 유형과 실현 양상

		유형	사동표현
어휘형	한국어	보충형	시키다
		영파생	움직이다
	중국어	능격동사	稳定
		절대격동사	安神
통사형	한국어	-게/도록 하다/만들다	
	중국어	겸어문	使令式(请, 使, 叫, 让, 给..) 选定式(选)
		파자구문	把
형태형	한국어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중국어	得, 弄, 放, 加, 化	

2) 피동구문

'피동'의 사전적 의미[30]를 살펴보면 '피동'이란 문자 의미 그대로 '어떤 행위가 특정 사람이나 사물의 자체적 힘이 아닌 외부적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어 피동 표현에 대한 연구는 크게 피동 접미사가 있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과 형태적 피동과 비형태적 피동을 모두 인정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최현배(1977)에서는 피동문을 '-이-, -히-, -리-, -기-'형, '되다, 받다, 당하다'형, '-어 지다'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하는 포괄적인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러한 분류는 지금도 피동표현 연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상술한 분류를 차례로 형태형, 어휘형, 통사형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30)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중국어 신화 사전을 참고함.

<표3> 한국어 피동문 실현 양상

	형태형	어휘형	통사형
예시	-이-/-히-/-리-/-기-	되다, 받다, 당하다	-어 지다
		능격동사 '멈추다'	-게 되다

위의 표에서 제시된 한국어 피동문 실현 양상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형 피동표현은 모두 대응되는 능동표현을 가지고 있고 원동사에 '-이-, -히-, -리-, -기-'등 접미사를 추가하여 피동사로 쓰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 어휘형으로 실현되는 피동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타동사 체언에 '되다, 받다, 당하다'등을 붙여서 피동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멈추다, 깎았다'와 같이 형태 변화 없이 자동문과 타동문에 모두 쓰일 수 있는 능격동사이다. 셋째, 보조동사 '-어 지다'와 '-게 되다'는 본고에서 기동상과 에정상의 문법상 표지로 처리하고 있는데 동사, 형용사와 같이 쓰일 때 피동의 의미도 나타내고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통사형에 귀속시켜 논의한다.

王力(1943)에서는 중국어의 피동구문을 피동표지의 출현 여부에 따라 유표지 피동과 무표지 피동으로 구분하였다. 유표지 피동구문은 술어동사 앞에 '被, 受, 遭, 挨, 给, 叫, 让' 등으로 사동주를 명시하는 구문을 말한다. 전형적인 피동구문의 통사, 의미적 특징을 요약하면 동사는 피사동주에 영향성을 가지고 동사뒤에 보어나 다른 성분이 함께 나타나고, 피사동주 논항은 한정성을 가지며 능원동사, 부정사는, 시간사는 '被'의 앞에 위치한다.[31] 무표지 피동은 피동을 나타내는 특정 표지가 없기에 의미상의 피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특징으로는 양상적으로 절대격 구조를 가지고 의미적으로 피동을 나타낸다. 王力(1943)에서는 이러한 무표지 피동은 사동주를 언급할 필요가 없거나, 생명도가 낮은 무정물 피사동주가 주어로 쓰일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 范晓(2000)에서는 유표지 피동을 'NP1+被 +NP2 +VP', 'NP1+被 +VP', 'NP1+被 +NP2 +所+VP', 'NP1+被(叫, 让) +NP2 +给+VP' 등 네 가지로 세분화하였는데 이는 크게 사동주 NP2가 문장에서의 실현 여부에 따라 유사동주 피동과 무사동주 피동으로 나눌 수 있다. 무표지 피동의 전형적인 양상은 'NP+VP'와 'NP1+NP2+VP'이다. 그 중 NP1은 피사동주를 의미하고 NP2는 사동주를 가리키고 VP는 피동의 의미를 가진 동사구이다. 상술한 논의를 토대로 중국어 피동문 실현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유표지 피동은 통사형으로 무표지 피동은 어휘형으로 귀속시킨다.

31) 黄伯荣·廖序东,『现代汉语』, 高等教育出版社, 1991.

<표4> 중국어 피동문 실현 양상

어휘형	능격동사	医好, 洗干净, 写完...	NP+VP NP1+NP2+VP
통사형	전형 피동어휘	被, 受, 遭, 挨, 给, 叫, 让...	NP1+被 +NP2 +VP NP+被 +VP NP1+被 +NP2 +所+VP NP1+被 +NP2 +给+VP
	비전형 피동어휘	加以, 得到	NP +加以/得到 +VP
		由/归	NP1+由/归+NP2 +VP
		起来/上去	NP +VP起来/上去 +AP
		好/容易/难	NP +好/容易/难 +VP
		能/能够	NP +能/能够 +VP
		耐/经/抗	NP +耐/经/抗 +VP
		值得	NP +值得 +VP

위의 표에서 제시된 중국어 피동문 실현 양상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어의 어휘형 피동문에 쓰일 수 있는 동사는 비자주성과 비의지성의 특징을 지닌 피사동주 논항을 가진 능격동사인데 피동문 구조에서도 알 수 있는바 능격동사는 사동주 논항의 실현 여부에 따라 두 가지 구조가 있다. 둘째, 전형적인 피동어휘는 단어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가리키는 피동사 부류를 가리키고 비전형적인 피동어휘는 동사나 명사와의 결합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피동의미를 만들어내는 어휘를 가리킨다. 셋째, '加以'는 뒤에 출현하는 동사와 결부하여 어떤 대상의 변화를 나타내고, '得到'는 동보구조이므로 명사나 동사와 결합하여 피동을 표현하고, '由/归'는 사동주를 수식하면서 피동을 의미한다. 넷째, '起来'는 대부분 오감동사와 결부하여 피사동주 주어의 특정한 속성을 뒤에 따라오는 부사어로 수식하면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른 비전형적인 피동 어휘와 비교할 때 '起来' 피동문은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의 내재된 속성에 대해 평가하는 기능을 하며 능동의 양상으로 피동의 의미를 표현하기에 능격구조와 피동구조의 중간 상태인 중간구문에 귀속된다. 다섯째, 일부 연구들에서는 '应该, 要' 등 능원동사가 출현한 구문까지도 포함시키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문들의 피동의미는 수의적인 것으로 동일한 문장이 능동과 피동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동 표현에 넣지 않는다. 여섯째, 본고에서는 NP +好/容易/难/能/耐/经/抗/值得 +VP'의 양상으로 실현되고 피동표지 없이 피동의미를 표현하는 구문을 모두 비전형적인 피동문으로 본다. 이러한 구문은 상술한 '起来'구문과 마찬가지로 피사동주 주어의 본질적인 특성을 나타내기에 중국어의 중

간구문으로 간주된다[32].

3) 중간구문

중간구문이란 상술한 총칭성을 띤 예문들과 같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표층주어로 실현되고, 술어동사는 능동형으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주어의 내재적 특성이 외부 영향력을 받아 부각되고 술어는 이에 대해 기술,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는 구문을 말한다.[33] 중간동사(middle verb)란 능동형으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타동사와 피동사의 중간 상태에 있는 동사를 가리킨다. 중간구문의 표층주어의 특성은 외부의 작용에 의하여 실현되기에 피동문의 특징에도 부합된다. 그러나 전형적인 피동문과 달리 중간구문은 '임의의 동작주'를 함축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기술하지 않기에 진행형, 과거형에 쓰이지 않는다. 蔡淑美·张新华(2015)에 의하면 범언어적 시각에서 볼 때 중간구문은 대체로 두 가지 있는데 '독일어, 프랑스어, 아이슬란드어'와 같은 형태표지형(morphological pattern)과 '영어, 네델란드어'와 같은 통사적 분석형(syntactic analytical pattern)이 있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중간구문은 모두 '통사적 분석형'에 속한다. 본고에서는 '피동표지가 없이 피동 의미를 나타내는 능동형의 동사'만을 중간동사로 인정한다.[34]

Keyser&Roeper(1984), Quirk(1985), Fagan(1988), Stroik(1992), Ackema& Schoorlemmer(1995)등 기존의 연구에 결부하여 중국어 중간구문의 통사, 의미, 화용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동사의 기저 목적어인 NP는 피영향자, 도구, 시간, 처소, 재료 등 의미역을 가지고 표층주어로 실현되고 총칭적 일반 행위자 의미역을 가진 동작주 논항은 의미적으로 암시되어 있으나 통사적으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둘째, 중간동사는 피동표지가 없이 능동형을 취하고 표층주어에 대한 영향성을 함축하고 있고, 가장 현저한 영향은 물리적 변화이다. 셋째, 중간구문은 표층주어에 대해 평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근원은 내재적 속성이고 화자가 이에 힘을 가하면서 추출한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므로 중간동사를 수식하는 부가어가 명시되어야 하고 총칭적 특성을 기술하므로 현재 시제로 표현된다. 넷째, 중국어 중간구문의 지시대상은 일반적으로 '臭豆腐, 手表, 锁'와 같은 인조물인 경우가 많으며 어떤 제품의 성능을 기술하는 광고 홍보에 많이 쓰인다. 양상상, 중국어 중간구문은 '把'자문과

32) 중간구문의 분류는 蔡淑美·张新华(2015)를 참고.

33) Keyser, S.J. & Roeper, T., "On the Middle and Ergative Constructions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15),* 1984, pp.381-416.

34) 蔡淑美·张新华,「类型学视野下的中动范畴和汉语中动句式群」,『世界汉语教学』, 第2期, 2015, pp.196-210.

‘被’자문의 변환과정이 없고, 상표지가 나타나지 않으며 의미상, ‘임의의 동작주’논항이 함축되어 있다.

아래 예문은 중국어의 중간구문에 해당하는 예문들이다.

(11) 这本书读起来很容易。
(12) 这支笔很好写。
(13) 橘子皮能做药。
(14) 牛筋鞋底耐磨。
(15) 这本书值得读。

위의 예문에서 제시하듯이 중국어 중간구문은 ‘起来’, ‘好’, ‘能’‘耐’‘值得’와 동사와의 결합을 통하여 실현되고 의미적으로는 표층주어의 내재적 속성에 관해 평가할 때 쓰이는 문법장치이기에 현재상황에만 출현하고 상적으로는 총칭상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화자가 명제의 가능성이나 필연성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를 기술함으로써 인식양태의 기능을 가지고, 주어앞의 한정성 성분 혹은 ‘听说’와 같은 표현을 추가하여 출처를 제시함으로써 증거성을 나타낸다.

한국어 학계의 중간동사 및 중간구문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동,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를 제외한 중간동사에 관한 연구(강정연, 2013) 둘째, 사동,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 ‘-이/히/리/기’가 결부된 중간동사에 관한 연구(한송화, 2000) 셋째, 타동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중간동사와, 사동, 피동 접미사가 결부된 중간동사를 모두 포함한 연구(천호재 2002, 남승호 2003, 남수경 2011)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중간구문의 의미, 화용적 특징을 참고할 때 중간구문은 능동문과 피동문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상태로써 언어가 진화됨에 따라 문법형태가 불명시적인 상태로부터 명시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 중 출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한국어 중간동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사동, 피동표지가 포함된 동사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중간구문의 의미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중간구문은 특정사물의 내재적 속성이 행위주체의 외부 역량의 작용하에 나타나는 특징을 기술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간구문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의미확장 과정 중 나타난 중간동사가 쓰인 중간구문. 여기에는 ‘먹다, 들다’와 같은 고빈도 타동사가 포함된다. 둘째, 일부 자타양용동사가 쓰인 중간구문. 예를 들면 ‘멈추다, 휘다’와 같은 것이다. 셋째, 통사적 수단으로 실현되는 중간구문. 여기에는 ‘기 쉽다/좋다, (으)ㄹ 만하다, (으)ㄹ 수 있다’ 등이 포함된다. 한국어 중간구문은 ‘NP가/이+AP+VP’로 도식화 할 수 있으며 그 원

형범주는 의미확장 과정에 생긴 '먹다'와 같은 타동사와 '움직이다'와 같은 능격동사이고 비전형적인 범주에는 '-기 쉽다/좋다, -아/어 지다, -게 되다, (으)ㄹ 만하다/(으)ㄹ 수 있다' 등 구문이 포함된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여 능격구문, 중간구문, 사동구문, 피동구문의 관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동구문은 사동주가 피영향자에 대한 영향을 부각시키고자 쓰이는 문법장치이고 피동구문은 피영향자가 사동주의 행동에 의해 받은 어떤 결과를 강조하고자 쓰이는 문법장치이다. 일반적으로 피동구문은 능동문이나 사동구문의 논항의 통사적 위치를 변화하는 것을 통하여 실현되기에 그 순서를 볼 때 가장 마지막 위치에 놓인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상술한 논의를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6> 능격구문, 중간구문, 피동구문, 파자구문의 관련성

<table>
<tr><th>유형</th><th>실현양상</th><th>판정기준</th><th>발전과정</th></tr>
<tr><td>능격구문</td><td>Vt=Vi
타동사=사동사</td><td>한Ss=So
중SV=VO</td><td rowspan="4">문법화
낮음
⬇
문법화
높음</td></tr>
<tr><td>중간구문</td><td colspan="2">Vt=Vpassive
타동사=피동사</td></tr>
<tr><td>사동구문</td><td colspan="2">한:-이,-히, -리, -기; 중:把</td></tr>
<tr><td>피동구문</td><td colspan="2">한:-이-, -히-, -리-, -기-... 중:被</td></tr>
</table>

6.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능격동사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제시하였고 능격구문과 관련된 몇 가지 특수구문의 실현양상과 이들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어와 중국어에는 능격구문, 중간구문, 사동구문, 피동구문이 모두 존재하나 그 발달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한국어의 능격구문은 '다치다, 울리다'등 일부 능격동사에 한하고 있는 반면 중국어에는 동결식 구조를 위주로 하는 능격동사가 대량으로 존재한다. 둘째, 능격구조의 발달정도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주제, 주어의 현저성과 중간구문, 사동구문, 피동구문의 수량과 문법화 정도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한국어의 중간구문은 의미확장 과정에 생긴 일부 '먹다, 들다'와 같은 타동사와 '움직이다'와 같은 능격동사, '-기 쉽다/좋다, -아/어 지다, -게 되다, (으)ㄹ 만하다/(으)ㄹ 수 있다.' 등 표현에 한하지만 중국어 중간구문은 '起来, 上去, 值得, 容易' 등 어휘와 동사의 결합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넷째, 사동구문과 피동구문의 문법화 정도와 발달 정도를 볼 때 한국어는 특정한 표지인 '-이,-히, -리, -기'등 접미사가 존재하며 타동사와 결합하여 사동사나 피동사를 형성하지만 중국어의 '把', '被'는 제한적으로 쓰이며 출현하는 문맥 역시 한정되어 있다. 대신 중국어에는 어휘자체가 사동의 의미를 가지는 능격동사와 절대격동사가 존재하며 일부는 '得, 弄, 放, 加, 化'등을 불여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피동의 의미는 능격동사가 'NP+VP'의 구조로 쓰여 표현하기도 하고, '由/归, 加以/得到, 起来'등 어휘가 동사에 결합되어 피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섯째, 상술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언어자체의 특징과 관련지을 수 있는데 한국어는 전형적인 대격언어로서 능격언어의 특징을 갖고 있기는 하나 뚜렷하지 않고 중국어는 능격언어와 대격언어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기에 절대격구조로 표현되는 사동표현과 피동표현이 양적으로 우세를 차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고영근,『한국어와 언어유형론』, 월인출판사, 2018.
고광주,『국어의 능격성 연구』, 월인출판사, 2001.
우양상,『국어 타동구문 연구』, 박이정출판사, 1996.
이상억,『국어의 사동.피동 구문 연구』, 집문당, 1999.
최현배,『우리말본』, 정음사출판사, 1977.
한송화,『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한국문화사, 2000.
方光焘,『方光焘语言学论文集』, 江苏教育出版社, 1986.
黄伯荣·廖序东,『现代汉语』,高等教育出版社, 1991.

<논문>
강정연,「한국어 중간동사에 관한 연구」,『한국어 의미학』, 제41집, 2013.
김상혁,「영어와 한국어의 능격 동사 비교」,『영어영문학 연구』, 제53권3호, 2011.
김석득,「자리만듦성과 시킴월(사동문) 되기 제약」,『말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80.
김혜영,「국어의 능격성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011.
남수경,「'-히-'계 접미사 구문의 한 유형에 대한 고찰」,『한국어의미학』, 제37집, 2011.
남승호,「한국어 이동 동사의 의미구조와 논항교체」,『어학연구』, 제39권 제1호, 2003.
박순남,「중립동사 구문의 정의」,『한글』, 제236호, 1997.
연재훈,「국어 중립동사 구문에 대한 연구」,『한글』, 제203호, 1989.

_____,「한국어에 능격성이 존재하는가:능격의 개념과 그 오용」,『한글』, 제282호, 2008.
이상억,「국어의 사동 피동 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70.
_____,「동사의 특성에 대한 이해:사동.피동성을 중심으로」,『어학 연구』, 제8권 제2호, 1972.
이지현, 이장호),「현대중국어의 능격동사와 '被+V'의 통사적 관련성」,『중국어문논역총간』, 제15회, 2005.
천호재,「한국어의 중간 자동사 구문과 중간 수동 구문에 관한 연구」,『어학연구』, 제38권 제1호, 2002.
蔡淑美·张新华,「类型学视野下的中动范畴和汉语中动句式群」,『世界汉语教学』, 第2期, 2015.
邓思颖,「作格化和汉语被动句」,『中国语文』, 第4期, 2004.
黄正德,「汉语动词的题元结构与其句法表现」,『语言科学』, 2007(4).
黄正德, 『中文的两种及物动词和两种不及物动词』, 第二届世界华语文教学研讨会论文集, 世界华文出版社, 1990.
金立鑫,「施通格论元组配类型的逻辑分析」,『北京第二外国语学院学报』, 2020(6).
金立鑫·王红卫,「动词分类和施格、通格及施语、通语」,『外语教学与研究』, 2014(1).
金立鑫·崔圭钵,「"把"字句的结构功能动因分析」,『汉语学习』, 第1期, 2019.
罗天华,「类型学的施格格局」,『上海外国语大学学报』, 2017(4).
张伯江,「汉语句式的跨语言观－"把"字句与逆被动态关系商榷」,『语言科学』, 2014(6).
郑　杰·陈楠楠,「韩国语作格动词的词类地位及判定标准」,『东北亚外语研究』, 第3期, 2019.
Anderson, S, "On the notion of subject in ergative language", *Subject and Topic*, New York:Academic Press, 1976.
Ackema P. and Schoorlemmer, M. , Middles and nonmovement, *Linguistic Inquiry (26)*, 1995.
Dixon, "Ergativity", *Language 55*, 1979.
_____, *Ergativity*,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Fagan, S.M.B, "The English Middle", *Linguistic Inquiry 19(2)*, 1988.
Jae Jung Song, *Linguistic typology: morphology and syntax*, Harlow: Longman, (2001).
Keyser, S.J .&Roeper , T ., "On the Middle and Ergative Constructions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15)*, 1984.
Langacker,R.W, *Foundation of Cognitive Grammar: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Quirk, R. et al,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1985.
Stroik, T., "Middles and Movement", *Linguistic Inquiry 23(1)*, 1992.

<기타자료>
https://ko.wikipedia.org/wiki/능격-절대격_정렬. [2023.11.01.]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作格动词, 通格动词, 非作格动词, 非宾格动词, 类型学
	영문	Ergative verb, Absolutive verb, Unergative verb, Unaccusative verb, Typology

A Study on the Contrast of Korean-Chinese Ergative Verbs Based on Typology

Li Ji-Lian · Huang Lian-Hua

This paper studied the ergative verbs in most typical ergative absolutive languages and accusative languages based on typological research. We clarified the criteria, types, characteristics of ergative verbs, absolutive verbs, unergative verbs, unaccusative verbs in Korean and Chinese language and reviewed the definition and subcategories of ergative verbs, and proposed the differences from other verbs and related sentences, such as middle construction, causative sentences, passive sentences.

Firstly, while Korean ergative constructions are limited to some ergative verbs, Chinese has a large number of ergative verbs which mainly focusing on verb-complement construction. Secondly, the level of development of ergative structures significantly influences both the markedness of subjects and agents in Korean and Chinese, as well as the grammaticalization level of middle, causative, and passive constructions. Thirdly, Korean middle constructions are confined to some transitive and ergative verbs which generated in the process of semantic extension, whereas in Chinese, middle constructions manifest diversely through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verbs. Lastly, in terms of the grammaticalization and development of causative and passive constructions, Korean exhibits specific markers, which used conditionally in Chinese.

저 자	제1저자	이길연 / 李吉蓮 / Li Ji-Lian				
	교신저자	황련화 / 黃蓮花 / Huang Lian-Hua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11.10.	심 사 일	2023.12.10.	게재확정일	2023.12.19.